朝鮮古蹟研究會의 설립과 운영

- 1931~1932년을 중심으로 -

吳永贊*

- 1. 머리말
- 2. 조선고적연구회의 설립
 - 1) 1910・20년대 '古蹟調査'
 - 2) 설립 과정
 - 3) 조직과 운영
- 3. 조선고적연구회의 초기 활동
 - 1) 재정과 활동
 - 2) 성격과 한계
- 4. 맺음말

1. 머리말

일제 강점기에 한반도에서 행해진 '古蹟調査'의 遺産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해방 후 우리 역사학과 고고학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에 대해서는 최근 한 국 근대사나 박물관학 분야에서 진행된 다수의 연구가 있으며,¹⁾ 고고학 연구자들 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²⁾

본고에서는 1931년 설립되어 1930, 40년대 한반도 고고학 발굴 조사에서 중요한 한 축을 이루었던 朝鮮古蹟研究會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고적연구회는 1920년대 중반 일제 조선총독부의 재정긴축 정책으로 인해 조선총독부박물관의 예

^{*}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

¹⁾ 최석영, 2004 『한국 박물관의 '근대적' 유산』, 서경문화사; 김인덕, 2007 『식민지시대 근대 공간 국립박 물관』, 국학자료원; 이순자, 2009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 연구』, 경인문화사

²⁾ 이성주, 1999「제국주의시대 고고학과 그 잔적」『고문화』46, 한국대학박물관협회, 27~69면; 정인성, 2006「關野貞의 낙랑유적 조사·연구 재검토」『호남고고학보』24, 호남고고학회, 140~152면; 강인욱, 2008「일제 강점기 함경북도 선사시대 유적의 조사와 인식」『한국상고사학보』61, 한국상고사학회; 이 기성, 2010「일제 강점기 고적조사 제도에 관한 검토」『이주의 고고학』(제34회 한국고고학 전국대회 발표요지), 한국고고학회, 535~547면

산과 행정조직이 축소됨에 따라, 기존에 이루어지던 한반도 내에서의 발굴조사를 지원하기 東京帝國大學 교수였던 黑板勝美가 주도하여 만든 조선총독부의 외곽단체이다. 조선고적연구회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조선총독부박물관에서 조선고적연구회의 설립과 운영에 직접 관여하였던 藤田亮策, 조선고적연구회의 평양연구소와 경주연구소에 각각 몸담았던 小泉顯夫 화 有光教一 의 글에서 언급된 정보를 토대로 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관계자의 진술에서는 조선고적연구회에 대한표면적인 사실만 간략히 언급되고 있어서, 성립 과정과 운영, 그리고 성격 등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았다.

필자는 그간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일제 강점기의 낙랑고분 발굴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1930·40년대 낙랑고분에 대한 발굴 조사를 주도했던 조선고적연구회의 실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낙랑고분 출토유물 및 유리건판사진, 발굴 기록 등 일제 강점기 발굴 자료에 대해 조사하던 중, 조선총독부박물관에서 작성한 공문서 속에서 조선고적연구회와 관련된 일련의 문서를 확인하였다. 경험 구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이하 '총독부박물관 공문서'라 칭함)는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박물관의 행정 처리과정에서 생산된 문서로서, 해방을 맞이하면서 조선총독부박물관에서 국립박물관으로 이관된 것이다. 이 일괄 문서는 조선총독부박물관에서 생산한 모든 종류의 공문서가 망라된 것은 아니고, 박물관 소장품이나 고적조사와 관련된 기록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경기 중에는 고적조사위원회의 회의록, 직원의 출장복명서, 유적의 보수나 보존 공사관련 서류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번에 조선고적연구회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³⁾ 藤田亮策, 1931「朝鮮古蹟研究會の創立と其の事業」『青丘學叢』6, 青丘學會, 189~191 円; 1933「昭和八年度の朝鮮古蹟研究會の事業」『青丘學叢』14, 青丘學會; 1951「朝鮮古文化財の保存」『朝鮮學報』1, 朝鮮學會, 255~258 円; 1963「朝鮮古蹟調査」『朝鮮學論考』, 藤田先生記念事業會, 67~88 円

⁴⁾ 小泉顯夫、1932 「朝鮮古蹟研究會」の創立及びその成績」 『史學雑誌』43-9、史學會

⁵⁾ 有光教一,2000「序就 朝鮮古蹟研究會의 創立」『朝鮮古蹟研究會遺稿 I: 慶州皇吾里16號墳・慶州路西里 215番地古墳發掘調査報告)』,東洋文庫・유네스코東아トー・文化研究센터,1~4면・1934「朝鮮古蹟研究會昭 和九年度事業の概況」『青丘學叢』18,青丘學會,182~185면;京都 木曜クラブ 編,2003「有光教一氏インタビュ-私と朝鮮古蹟調査研究-戦前から戦後を通して」『考古學史研究』10,京都 木曜クラブ,3~30면

⁶⁾ 이순자, 2009 「제4장 일제강점기 조선고적연구회와 고적조사사업(1931~1945년)」 『일제강점기 고적조사 사업 연구』, 경인문화사에 잘 정리되어 있다. 박선애, 2007 『조선총독부의 문화재 정리사업 연구』, 동의 대학교 박사학위논문도 있다.

⁷⁾ 오영찬, 2004「國立中央博物館 所藏 樂浪古墳 資料와 研究現況」『韓國古代史研究』34, 韓國古代史學會, 43~48면

⁸⁾ 총독부박물관 공문서에 대해서는 2권의 목록집이 간행되었으며(國立中央博物館, 1996 『國立中央博物館 所藏 古文書目錄』; 國立中央博物館, 1997 『光復以前 博物館 資料目錄集』國立中央博物館所藏資料集 第2卷), 간략한 소개도 이루어진 바 있다.(김도형, 2000 「일제하 총독부박물관 문서와 관리체계」『기록학연구』3, 한국국가기록연구원, 115~138면)

자료를 확인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총독부박물관 공문서 중 조선고적연구회 관련 자료를 통해 그간 베일에 가려졌던 조선고적연구회의 설립 과정과 초기 운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한다. 이 과정에서 당시 관계자들의 잘못된 증언에 의존하여 그간 연구에서 오류를 범했던 조직의 人的 構成이나 財源에 대한 착오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財源 중심으로 조선고적연구회의 성격을 살펴보고, 財源과 발굴 유물의 일본 반출의 연관성 및 조선고적연구회의 활동 내용을 통해 식민지 조선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조선고적연구회의 설립

1) 1910・20년대 '古蹟調査'

1900년 八木奘三郎을 시작으로 이루어진 한반도에서 일본인의 고고학 조시는 東京帝國大學 소속의 건축학자 關野貞 이후 본격화되었다. 關野貞는 1902년부터 한반도의 고건축 및 고적조사에 참여하였고, 그 결과를 1916년 『朝鮮古蹟圖譜』로 간행하여 제국주의 무단정치를 문화적 '善政'으로 포장하는 선전 도구로 이용하기도하였다. 9 한편, 동경제국대학 인류학과 鳥居龍藏은 식민지 교과서 편찬을 위한 사료조사의 명문으로 1911년부터 선사 유적과 유물에 큰 관심을 가지고 식민지 조사에 참여하였다. 10)

조선총독부는 1916년 7월 「古蹟及遺物保存規則」을 제정·발포하고, 중추원 산하에 정무총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고적조사위원회를 설치함에 따라 이후 발굴조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조선총독부에서는 5개년으로 「古蹟調査計劃」을 입안하였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제1차년도에는 漢四郡과 고구려, 제2차년도에는 삼한·가야·백제, 제3차년도에는 신라, 제4차년도에는 예맥·옥저·발해·여진, 제5차년도에는 고려를 배정하여 조사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사 계획에서는 각 시대의정치적 중심지를 조사 대상으로 삼았는데, 순수한 유적 및 유물 조사라기보다는

⁹⁾ 西川宏, 1970「日本帝國主義における朝鮮考古學の形成」『朝鮮史研究會論文集』 7, 朝鮮史研究會, 111~112円

¹⁰⁾ 朝倉敏夫, 1993「鳥居龍藏の朝鮮半島調査」『鳥居龍藏の見たアジア』, 國立民族學博物館, 44~48 円; 天羽 利夫, 「國立中央博物館所藏の鳥居龍藏闕聯資料」, 위의 科, 68~70 円

박물관에 진열할 전시품의 확보와 함께 식민사관에 입각한 조선의 역사를 재구성 하는데 숨은 의도가 있었다. 결국 일제의 고고학 조사는 식민사관으로 왜곡된 문 헌사를 보완해 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조선총독부는 1915년 9월 경복궁에서 개최된 施政五年紀念朝鮮物産共進會에 즈 음하여 조선총독부박물관을 설치하고, 종래 내무부 제1과에서 맡았던 고적조사와 編輯課에서 담당했던 사료조사사업을 통괄하도록 하였다. 1915년 12월 1일 개관하 조선총독부박물관은 총독부의 총독 직속기관인 總督官房 총무국 총무과에 소속되 었다가 후에 庶務部 文書課에 소속되고, 中樞院 書記官과 겸임하던 博物館 主任이 일체의 사무를 통괄하였다. 1916년 7월 「古蹟及び遺物保存規則」의 발포와 함께 고 적조사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고적조사위원회의 사무도 박물관에서 맡았는데, 당 초에는 박물관 주임이 고적조사위원회 간사를 맡았다.¹¹⁾ 1921년 금관총 발굴을 계 기로 그해 10월 학무국에 고적조사과가 신설되면서 박물관 관련 업무가 이관되는 데, 고적조사과에서는 "古蹟, 古社寺, 명승 및 천연기념물 등 조사 및 보존에 관하 사항"과 함께 "박물관에 관한 사항"도 다루었다. 직원은 課長 1명, 鑑査官 1명, 屬 2명, 技手 2명, 囑託 10명, 雇員 2명으로 이루어졌고, 박물관 경주분관 설립을 위 하여 경주에 촉탁 1명, 고원 1명을 두었다.¹²⁾ 고적조사과 직원 중 촉탁인 馬場是一 郞과 野守健이 박물관 업무를, 山內廣衛가 고적조사를 담당하였다. 과장에는 후일 京城帝國大學 교수를 지내는 편집과장 小田省吾가 겸임하였다. 그러나 1923년 재 정정리에 따라 전임 屬 1명, 촉탁 2명을 줄였고, 1924년 末에는 고적조사과가 폐 지되면서 관련 업무는 학무국 宗敎課로 이관되었다. 조선총독부박물관은 최소의 인원으로 고적보물명승천연기념물의 지정, 보존, 조사, 보존공사 등을 모두 수행하 기 어려웠고, 긴축 재정과 행정 정리에 의해 고적조사사업은 줄어들어, 1925년 이 후에는 적극적인 사업을 거의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13)

이러한 상황에서 1931년 설립된 것이 바로 朝鮮古蹟研究會이다. 동경제국대학 교수였던 黑板勝美가 주도하여 만든 이 단체는, 일본에서 기부금 및 기타 자금을 모금하여 당시 조선총독부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던 '고적조사'를 지원하기 위한 외곽 단체였는데, 설립 이후 1945년까지 한반도에서 대다수의 고고학 조사를 주도하

¹¹⁾ 고적조사위원회의 간사는 후에 직제의 변동에 따라 古蹟調査課長, 宗教課長이 맡았다.

¹²⁾ 전임 직원의 人選은 東京大學 黑板勝美,京都大學 濱田耕作 교수에 의뢰되어,東京에서는 藤田亮策・後藤守一,京都에서는 梅原末治・小泉顯夫가 추천되었는데,後藤守一과 梅原末治는 조선에 상주하기 어렵게 되어 藤田亮策과 小泉顯夫가 1912년 3월 부암하게 되었다.(桑田六郎 등, 1982「先學を語る:藤田亮策先生」『東方學』 64,東方學會,6~7면)

¹³⁾ 김인덕, 2009 「제2장 조선총독부박물관」『한국박물관 100년사』, 국립중앙박물관·(사)한국박물관협회, 82~147면에 잘 정리되어 있다.

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조선고적연구회는 누구의 주도 하에 어떠한 과정을 거쳐 설립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2) 설립 과정

조선고적연구회의 설립에 대해서는 그간 黑板勝美가 주도했다는 사실 이외에는 자세한 과정을 알 수 없었다. 이번 총독부박물관 공문서 속에 포함된 備忘錄 성격의 메모를 통해 조선고적연구회의 설립 과정을 상세히 알 수 있게 되었다. ¹⁴⁾ 이 메모는 「朝鮮古蹟研究會設立ノ經過(조선고적연구회 설립 경과)」라는 제목 하에 1931년 4월 1일부터 1931년 9월 1일까지 5개월간 조선고적연구회의 설립 과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일자별로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다. 세로로 붉은 罫線이 있고 '朝鮮總督府'가 찍혀져 있는 12행 반절 美濃紙에 작성되어 있는데, 전체 분량은 6매이다.

필체 및 기술된 내용으로 보아, 조선총독부박물관과 고적조사의 실무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던 藤田亮策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藤田亮策(1892~1960)는 1918년 동경제국대학 사학과를 졸업하고 宮內省 諸陵寮에 근무하다가, 1922년 조선총독부 박물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 이후 조선총독부의 고적조사사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1926년부터 京城帝國大學 조교수를 시작으로 법문학부장까지 이른다. 조선고적연구회가 설립되던 1931년에는 조선총독부 學務局 古蹟系 주임과함께 경성제국대학 조교수를 함께 맡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 메모의 작성 시기는 언제일까? 1931년 9월 초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이 메모에는 마지막으로 9月 1日 三菱合資會社 靑木菊雄으로부터 편지를 받은 사실까지만 기재되어 있는데, 총독부박물관 공문서 중에 실제 문서로 현존하는, 9월 5일 「岩崎 贊助金 豫算案 作成」, 9월 7일「慶州平壤研究所 事務囑託 依賴」, 9월 9일 「岩崎 男爵에게 禮狀 發送」등의 사실은 아직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藤田亮策의 메모 기록을 시간 순에 따라 정리하면 〈자료 2〉와 같다. 〈자료 2〉의 기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선고적연구회의 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黑板勝美였는데, 이는 조선고적연구회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다른 관계자들의 의견과 일치한다. 黑板勝美(1874~1946)는 일본 古文書學의 체계를 수립하고 문화재의 보존과 조사에 지대한 역할을 하였으며, 동경제국대학 국사학과 교수로 활동한 일본 역사학계의 거물이다. 15) 1915년에 이미 한반도의 고적조사에 관여하기 시작하

¹⁴⁾ 총독부박물관 공문서 古蹟調査25-6「朝鮮古蹟研究會 昭和6年度」

¹⁵⁾ 최재석, 1990 「黑板勝美의 일본 고대사론 비판」 『정신문화연구』 13권 1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27~ 128면; 李成市, 1999 「黑板勝美를 통해 본 식민지와 역사학」 『한국문화』 23,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여, 1916년 고적조사위원회가 발족됨에 따라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1922년에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으로 취임한 有吉忠—과는 대학 동창이어서 조선사 편수작업을 진두지휘하기도 하기도 하였다. 黑板勝美는 이미『朝鮮半島史』의 구체적인사업계획의 입안과 집필자 선정 등 편찬 과정에 관여한 경험이 있으며, 자금 조달을 포함하여 조선고적연구회의 설립과 운영을 총괄하였다. 16) 조선고적연구회의 설립에 대해서 전체적인 기획과 조정은 黑板勝美가 맡았고, 조선총독부 내부를 중심으로 한 실무 조정 작업은 藤田亮策이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藤田亮策의 메모에 의하면, 조선고적연구회의 설립 과정은 대체로 네 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첫째 단계는 설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던 시기이다. 조선고적연구회를 설립하려는 논의가 개시된 것은 1931년 4월 1일로 되어 있다. 최초 발의지는 黑板勝美와 藤田亮策 그리고 조선총독부박물관 경주분관 촉탁諸應央雄 세 사람이었다. 당시 조선총독부의 긴축재정으로 인해 고적 조사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민간에서 고적조사에 참여하는 문제를 의논하였다. 논의 과정에서 諸應央雄은 민간의 有志에게 발굴을 허가하는 방안을 주장하였고, 170 藤田亮策은 공공 연구소를 설립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黑板勝美가 타협안으로 민간의자금을 끌어들여 평양과 경주에 연구소를 설립하는 案을 내게 되었는데 찬조금은일본 東京나 大阪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1916년 7월 반포된 조선총독부 부령 제52호「古蹟及遺物保存規則」¹⁸⁾과 조선총독부 훈령 제30호「古蹟及遺物=關スル件」¹⁹⁾에 의하면, 유적은 발견 즉시 경찰서장을 거쳐 조선총독부에 보고해야 하고, 발굴 조사처럼 현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선 총독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결국 조선총독부의 허가 없이는 일체의 발굴조사를 할 수 없었으며, 이후 일제 강점기 전 시기를 통하여 대부분의 발굴 조사는 조선총독부박물관과 관변단체인 조선고적연구회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물론 예외는 있었는데, 바로 1925년 일본 東京帝國大學에 의해 행해진 평양 석암리 205호분의 발굴조사였다. 1926년 東京美術學校와 大阪 毎日신문사에서 발굴조사를 신청하였으나, 조선총독부는 무덤 조사를 禁忌視하는 조선인들의 풍속과 유물이 일본으로 반출되는 것에 대한 민심의 악화를 우려하여 발굴 조사를 허가하지 않았다. ²⁰⁾ 발굴

^{243~244}면

¹⁶⁾ 藤田亮策, 1963 앞의 글, 82면 李成市, 1999 앞의 논문, 253~255면

¹⁷⁾ 諸鹿央雄에 대해서는, 정인성, 2009「일제 강점기 '경주고적보존회'와 모로가 히데오(諸鹿央雄)」『大丘 史學』95, 大丘史學會, 1~34면 참고.

¹⁸⁾ 朝鮮總督府令 제52호,『朝鮮總督府官報』 제1175호, 1916년 7월 4일

¹⁹⁾ 朝鮮總督府、1917 「古蹟及遺物ニ關スル件」 『大正5年度 古蹟調査報告』

조사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독점이라는 정책 기조 상 민간에 발굴조사를 허가하자는 諸鹿央雄의 안은 받아들여질 수 없었으며, 조선총독부의 재정 여건 상 공공 연구소의 설립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黑板勝美는 자금은 민간에서 끌어 오되, 조선총독부의 관변 단체를 설립하는 방안을 타협안으로 내게 되었다.

黑板勝美은 관변 단체의 틀을 갖춘 민간 연구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조선총독부와 경주, 평양의 지역 인사 등 세 방면으로 접촉하기 시작하였다. 먼저, 다음날인 4월 2일 조선총독부 兒玉秀雄 정무총감²¹⁾과 武部欽一 학무국장, 李昌根 종교과장, 小田省吾 경성제국대학 교수를 만나, 연구회 설립案을 제시하고, 총독에게는 黑板이 東京에서 직접 설명하기로 하였다. 4월 3일에는 黑板勝美과 藤田亮策, 諸鹿央雄은 평양으로 가서 평양 お牧の茶室에서 園田寬 평남지사, 藤原 평남 내무부장, 大島良士 평양부윤 등 평양지역 유력 관료와, 針替理平 平壤府도서관장, 富田晋二, 橋都芳樹 등 지역 유지들과 희합을 가지고 평양연구소 설립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4월 5일에는 대구로 가서 林茂樹 경북지사를 만나고 연구소 설립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비록 민간 자본으로 연구소가 설립된다고 하더라고, 발굴조사를 위한 허가권이 조선총독부에 있었으므로 조선총독부와의 긴밀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했다. 아울러 평양의 낙랑유적과 경주의 신라유적을 중점적으로 발굴할 의도를 가지고 출발하였기 때문에, 고분 발굴에 대한 지역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는 평양과 경주 관할의 유력 관료와 지역 유지의 협조가 필요하여 이 같은 사전 협의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黑板의 제안을 받은 조선총독부에서 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黑板와 혐의를 진행시키던 단계이다. 5월 중에 兒玉 정무총감의 독촉으로 학무과장, 종교과장, 小田 경성제대 교수가 총독부의 案을 만들었고, 6월 4일 藤田이 일본으로 건너가 黑板, 武部 학무국장과 함께 혐의하였다. 6월 7일 조선총독부 동경출장소에서 黑板, 武部 학무국장, 藤田은 네 가지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첫째, 간단한 研究會로서 法人으로 하고, 사업은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구할 것. 둘째, 有志의 기부금은 때가 때이니만큼 1萬圓은 곤란하고, 최소 4千圓으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셋째, 연구원은 현재 東京에 제한하지 말고 京都에서도 선정할 것. 濱田박사와 혐의할 것. 넷째, 관계 평의원의 구성에 三井(園), 三菱(青木)의 대표[三菱合資회사 青木菊雄—필자 쥐, 兩 신문사 사장, 美校長[東京美

²⁰⁾ 오영찬, 2007 「제국의 예외 : 1925년 일본 東京帝國大學의 낙랑고분 발굴」 『일본에 있는 낙랑 유물』, 학연문화사, 469~472면

²¹⁾ 兒玉秀雄 정무총감은 초대 조선총독인 寺內正義의 첫째 사위이다.(金鳳烈, 1999 「寺內文庫'한국관련 문헌의 고찰」 『사학연구』 57, 국사편찬위원회, 183면)

術學校長], 細川公[細川護立]22)을 포함시킬 것.

상기 합의를 바탕으로, 黑板과 藤田은 東京과 京都 양쪽으로 접촉을 시도하였다. 먼저 東京에서는 原田級人 동경제대 교수, 大島義脩 東京帝室博物館 총장 및 제실 박물관 사무관과 협의를 하고 찬동을 얻어내었다. 原田은 동경제대의 유일한 고고 학 전공 교수이자 조선총독부 고적조사위원회의 위원이었으므로, 연구원 인선 뿐 아니라 향후 발굴과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제 실박물관 측과의 갑작스러운 접촉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 부분 은 재정 문제와 관련된 것인데,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다. 京都에서는 京都 帝國大學 濱田耕作, 梅原末治 교수와 연구회 설립 문제 및 연구원의 선정문제에 대하여 이해를 구한 것으로 되어 있다. 濱田은 일본 고고학의 거물인 동시에 梅原 과 함께 고적조사위원이었으며, 실제 경도제대는 동경제대와 함께 한반도의 고적조 사에서 중요한 한 축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협조가 필요하였던 것이 다. 뒤에 京都帝大 측에서는 경주연구소 연구원으로 有光教—을 추천하게 된다.

세 번째 단계는 7월부터 8월 사이로 연구회의 설립에 난항을 보이던 시기이다. 1931년 6월 17일 조선총독부 총독이 齋藤實에서 宇垣一成으로 바뀌었고, 6월 19일에는 정무총감이 兒玉秀雄에서 今井田淸德으로 교체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주무 국장이었던 학무국장이 武部欽一에서 牛島省三으로 바뀌게 되었다. 조선총독부 상층부의 대폭적인 인사 이동으로 인해 해당 관료들이 교체됨에 따라 조선고적연구회의 설립이 진전을 보지 못한 채 7월 한 달은 교착 상태에 빠졌던 것으로 보인다. 東京에 머무르고 있던 黑板는 조선총독부 최상층부의 인사이동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시점 이후에야 서울의 藤田 및 전임 武部 학무국장, 후임 牛島 학무국장과계속 서신교환을 하면서 막후 조정을 하였던 것으로 메모는 전하고 있다.

그리고 7월 31일 조선총독부에서는 학무국장과 종교과장이 조선고적연구회의 기초 案을 黑板에게 제시하였는데, 이에 대해 黑板는 조선총독부의 회칙 案에 대해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에 조선총독부 측에서는 小田省吾, 今西龍, 末松保和, 鮎貝房之進, 종교과장, 藤田亮策 등이 모임을 갖게 되는데, 黑板이 제기한 사안을 조정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黑板은 조선고적연구회의 회칙 중 임원의 구성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따로 논의하겠다.

네 번째는 8月 24日 정무총감의 최종 승낙을 받고 회칙을 결정함에 따라, 마침

²²⁾ 細川護立(1883~1970)은 熊本藩主 細川護久의 四男으로, 일본 귀족원의원, 국보보존회회장 등을 역임하 였으며, 1925년 東京帝國大學의 평양 석암리 205호분의 발굴을 재정적으로 후원한 안물이다.

내 조선고적연구회가 설립되는 단계이다. 8月 25日 黑板은 일본에서 서울로 와 정무총감과 학무국장을 만났으며, 조선총독부에서는 평의원을 위촉하는 문서를 보냈다. 8월 28일 조선고적위원회에서는 조선고적연구회의 사업안을 승인함으로써 설립 절차를 마무리 짓게 되었다. 한편 黑板은 8월 27일 평양으로 가서 藤原 평남 내무부장, 大島 평양부윤 등에게 조선고적연구회의 설립을 다시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였으며, 8월 30일에는 경주연구소의 조사 예정지를 둘러보기도 하였다. 9월 1일에는 三菱合資회사 青木菊雄으로부터 6千圓을 京城出張所에서 지불하겠다는 통보를 받음으로써 1931년 설립 첫 해의 재정 문제도 무난히 해결하게 되었다.

藤田의 메모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국립중앙박물관에 현존하는 다른 공문서에 의하면, 9월5일 찬조금에 대한 예산안을 작성하였고,(「岩崎 찬조금 예산안 작성」) 9월7일에는 경주와 평양연구소에 주재하는 연구원의 조사에 협조하도록 해당 지역인사인 평양의 針替理平, 鳥飼生駒, 그리고 경주의 諸庭央雄, 大坂金太郎을 사무촉탁으로 임명하고,(「경주평양연구소 사무촉탁 의뢰」) 9월9일에는 岩崎 男爵에게 감사편지를 발송하는(「岩崎 男爵에게 禮狀 발송」)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이상으로 1931년 4월부터 9월 사이에 이루어진 조선고적연구회의 설립 과정에 대하여 藤田이 작성한 메모를 중심으로 재구성해 보았다.

3) 조직과 운영

조선고적연구회의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이루어졌을까.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1931년 설립 당시 제정된 「조선고적연구회 규칙」에 명시되어 있다. 〈자료-1〉은 회칙의 전문이다.

조선고적연구회의 조직 구성부터 살펴보자. 조선고적연구회는 이사 5명, 감사 2명, 평의원 약간 명, 간사 2명으로 구성되는데, 이사장은 이사 중에 추대되었다. 이사장은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이 당연직으로 맡았으며, 이사, 감사 및 평의원, 간사는 이사장에 의해 선임되었다. 이 중 중요한 자리는 이사와 평의원이었다. 이사는 이사장의 보좌하고 연구회의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책임을 지며, 평의원은 중요 사항을 의결하는 의결 기구의 성격을 띠었다. 그렇다면 조선고적연구회의 임원은 어떤 인물들로 구성되었을까?

설립 당초 이사장은 정무총감 今井田淸德이라는데 대해서는 일치하지만, 이사와 평의원 명단에는 약간의 혼동이 있었다. 藤田는 黑板勝美, 小田省吾, 濱田耕作, 鮎 貝房之進, 池內宏, 梅原末治와 학무국장이 理事라고 하였지만, 坂詰秀一은 이들을 評議員으로 지칭하고 있다. 23)

이번에 확인된 총독부박물관 공문서를 통해 1931년 조선고적연구회의 초대 임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정리한 것이 〈자료 3〉이다.

이미 알려진 대로, 조선고적연구회의 초대 이사장은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인 수 井田淸德이 맡았고, 이사진은 학무국장 牛島省三, 동경제대 黑板勝美, 경도제대 濱田耕作, 京城帝大 小田省吾으로 구성되었다. 초대 평의원을 살펴보면 京城帝大 今西龍, 이왕직 末松熊彦, 鮎貝房之進, 중추원 촉탁 大原利武, 동경제대 關野貞, 동경제대 原田淑人, 동경제대 池內宏, 회계과장 菊山嘉男, 문서과장 萩原彦三, 평남지사園田寬, 경북지사 林茂樹, 殖銀技師 中村誠, 동경제실박물관 총장 大島義脩, 동경미술학교장 正木直彦, 경도제대 內藤虎太郎, 三井物産 京城支店長 住井辰男으로 이루어졌으며, 24 그리고 9월 3일에 李王職 次官 篠田治策, 평양부윤 大島良士를 추가로 선임하였다. 25)

이사와 평의원은 몇 개 그룹의 인물들로 분류해 볼 수 있다. 먼저 조선총독부의 관료들을 들 수 있다. 조선총독부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정무총감이 이사장이었고, 그 아래 학무국장, 회계과장, 문서과장, 종교과장, 이왕직 사무관 등 조선총독부의 주요 관료들이 이사와 평의원, 그리고 감사로 배치되어 있다. 다음으로는 제국대학 교수 그룹이다. 연구회에서 추진하는 발굴 조사 내용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동경제국대학과 경도제국대학, 경성제국대학 소속의 고고학, 역사학전공의 학자들이 다수 포함되었던 것이다. 이들은 모두 조선총독부 고적조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1910, 20년대 한반도에서 고적조사를 주도하던 인물들이다. 그리고 주된 조사 대상지역인 낙랑유적과 평양유적이 위치한 평남과 경북 도지사 등지역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고, 아울러 유명한 골동품 수집가였던 三井物産 京城支店長 住井辰男 등도 평의원으로 포함되었다. 한편 간사는 소관 업무의 담당인 종교과장 李昌根과 박물관 주임 藤田亮策이 맡았는데, 1925년 고적조사과가 폐지된 상황에서 宗教課에서 고적 조사 및 박물관 관련 업무를 맡고 있었다.

조선고적연구회의 이러한 임원 인선과정은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당초 조선고적연구회를 주도했던 黑板의 의도와는 다르게 구성되었기 때 문이다. 회칙의 제정과 임원의 인선과정에서 黑板과 조선총독부 사이에는 모종의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결국 조선고적연구회의 성격과 관련된 문제

²³⁾ 藤田亮策、앞의 글(1963), 82면; 坂詰秀一, 1997 『太平洋戦争と考古學』, 吉川弘文館, 93면

²⁴⁾ 총독부박물관 공문서 古蹟調査25-3「役員囑託等ノ件」(昭和 6年 8月 26日)

²⁵⁾ 총독부박물관 공문서 古蹟調査25-3「評議員囑託/件」(昭和 6年 9月 3日)

였다. 즉, 조선총독부 관료 위주로 연구회를 운영하려는 조선총독부의 입장과 민간에서 재원을 끌어들인 만큼 제국대학 교수를 중심으로 한 민간 학자들의 발언권을 강화하려는 黑板의 입장이 충돌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고적연구회의 설립을 논의하던 과정으로 다시 되돌아가 보자.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1931년 6월 7일 黑板과 武部 학무국장은 네 가지 원칙을 합의하였는데, 그 가운데 三菱 회사 관계자, 兩 신문사 사장, 동경미술학교장, 細川護立을 평의원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민간에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적극적인도움을 청해야 했던 黑板의 입장에서는 이들의 존재가 중요하였다. 이로 보건대 黑板은 민간에서 모금한 찬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조선총독부의 승인 하에 발굴조사를 추진하려고 하였고, 민간 주도의 성격이 강한 연구회를 의도하였던 것으로보인다.

그러나 7월 31일 조선총독부에서 학무국장과 종교과장이 보내온 조선고적연구회 회칙 초안은 이러한 黑板의 의도와는 다른 내용을 담고 있었다. 26) 초아올 살펴보 면, 제 7조의 조직과 임원의 구성에서 최종 단계의 회칙과 차이를 보인다. 이 부 분이 회칙의 제정과정에서 黑板과 조선총독부 사이에 논란의 대상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초안의 제 7조에는 이사 4명, 감사 2명, 평의원 약간 명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최종안에 비해 이사가 1명 적고 간사가 빠져 있다. 이사장은 정무총 감으로 최종안과 같으나, 이시는 학무국장, 종교과장, 박물관장, 감사는 고적조사위 원 중에 임명하며, 평의원은 黑板勝美, 濱田耕作, 今西龍, 小田省吾, 기타 조선의 고적조사위원들로 구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초안에 따르면 이사는 총독부 관료 들이, 평의원은 고적조사위원들이 맡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당시 고적조사위원은 대 체로 관변학자 13명 내외와 조선총독부 관료 10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관 변학자 13명 중에도 제국대학 교수는 9명에 불과하였고, 나머지는 조선총독부에 관련된 사람이었다.²⁷⁾ 따라서 고적조사위원회의 의사 결정도 조선총독부에 의해 충 분히 좌지우지되는 구조였다. 조선총독부에서는 명목상 중요 사항의 의결은 학자 들이 포함된 고적조사위원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연구회의 기본적인 업무 는 총독부 관료들이 수행하는 것으로 구상하였다. 이러한 총독부의 초안에 대하여 黑板은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8월 15일 조선총독부에서는 小田省푬, 今 西龍, 末松保和, 鮎貝房之進, 종교과장, 藤田亮策 등이 모여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아마 타협책을 모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사를 충독부 관료인 학

²⁶⁾ 총독부박물관 공문서 古蹟調査25-6「朝鮮古蹟研究會規則」

²⁷⁾ 이순자, 앞의 책(2009), 61면 (표 3-4) 고적조사위원회 위원 명단

무국장과 세 명의 학자들로 구성하고, 평의원에는 학자들과 관료, 그리고 해당 지 방의 관료, 민간 재정 후원자들로 고르게 구성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던 것으로 보 인다

《자료·3》에 의하면, 1932년도에는 평의원에 약간의 변동이 있는데, 지방과장 西岡芳太郎, 토목과장 榛葉孝平, 보안과장 田中武雄, 비서과장 安井誠一郎, 林務과장澤慶治郎, 中樞院 參議 柳正秀, 동경미술학교 강사 小場恒吉, 平壤府尹 阿部千一등이 추가된다. 그리고 전 해 경상북도지사였던 林茂樹가 학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이사 겸 평의원이 되고, 새로 부임한 평안남도지사 藤原喜藏와 경상북도지사 金瑞圭가 평의원이 된다. 그리고 간사에는 종교과장 李昌根 대신에 사회과장 俞萬兼으로 바뀐다. 28) 이러한 변동은 인사 이동에 따른 당연직의 승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이외에도 1932년도에는 평의원 구성에서 변화가 나타난다. 무엇보다 평의원에 조선총독부 관료들이 다수 추가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당초 조선총독부 관료 중에서 정무총감, 학무국장, 회계과장, 문서과장, 종교과장 정도가 평의원에 포함되었지만, 다시 지방과장, 토목과장, 보안과장, 비서과장, 林務과장 등이추가됨에 따라 업무상 조금이라도 관여가 되는 과장들은 모두 포함되어 조선총독부의 주요 간부들을 그대로 옮겨놓은 형국이 되어 버렸다. 조선고적연구회의 운영에서 조선총독부의 입김이 강화되어 가는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9)

3. 조선고적연구회의 초기 활동

1) 재정과 활동

조선고적연구회는 1931년 평양과 경주에 연구소를 개설하고, 조선총독부의 허가 하에 발굴조사를 실시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연구회는 설립 과정에서

²⁸⁾ 총독부박물관 공문서 古蹟調查25-6「第壹回 朝鮮古蹟研究會評議員會議案」(昭和 7年 4月 4日)

²⁹⁾ 추가로 한 가지 더 언급하자면, 1942년 조선고적연구회 회칙에서는 제 7조의 이사장 선임 부분이 크게 바뀐다. 조선총독부 정무총감 대신에 학무국장을 이사장으로 추대하고 있는데, 대신 정무총감은 이사진 속에 포함되어 있다. 추정컨대 1930년대 말 또는 1940년대 초의 어느 시점부터 조선고적연구회의 이사 장은 정무총감에서 학무국장으로 바뀌었던 것으로 보인다.(총독부박물관 공문서-152 「昭和17年以來 古 贖關係庶務雜件」) 이사장 조선총독부 학무국장 大野謙一, 이사 정무총감 田中武雄, 元경성제대 총장 山田三良, 동경제대 명예교수 黑板勝美, 이왕직촉탁 小田省吾, 감사 조선총독부 서기관 竹內俊平, 간사 경성제대 교수 藤田亮策

조선총독부에서 긴축재정 정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유적의 파괴에 따른 구제 발굴을 표면적으로 내세웠는데, 이전 시기에 조선총독부 학무국에서 행하는 조사 사업과 조선고적연구회의 조사 사업 간 가장 큰 차이는 바로 財源에 있었다. 비록 고적조사의 내용과 조사에 참여한 인력, 특히 囑託으로 참여한 제국대학 교수 등 의 인적 구성 면에서는 양자가 거의 일치하지만, 조선고적연구회의 사업은 민간 재원을 통해 운영된다는 점에서 조선총독부의 재정을 통해 수행되는 직접 사업과 는 분명히 달랐다. 조선고적연구회의 경우 민간으로부터의 재원 확보가 가장 중요. 한 문제였으며, 안정된 財源의 확보는 바로 연구회의 존립과 직결되는 시아이었다. 초기부터 재정의 확보를 위해 주도적으로 활약하 인물은 바로 黑板勝美였다. 그러 나 연구회에서는 설립 당초 안정적인 財政源을 확보한 것이 아니라, 一回的 성격 이 강한 개인의 찬조금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불안정한 재정 구조는 이 후 연구회의 사업 추진 방향과 내용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본고에서는 조선고적 연구회의 초기 단계인 1931~32년에 이루어진 재정과 조사사업의 추이에 대하여 살 펴보고자 하는데, 바로 이 시기는 1933년 이후 일본학술진흥회의 지원금을 수혜하 여 나름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한 시기와는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 1931~32년 조선 고적연구회의 재정 구조와 활동 내역은 조선총독부 공문서에 포함된 조선고적연구 회 평의원회의 회의 자료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30)

(1) 1931년도 재정과 활동

조선고적연구회의 설립 초기 재정은 三菱合資會社 社長 岩崎小弥太 男爵의 기부 금 6.000圓으로 출발하였다.³¹⁾

1932년 4월 4일 개최된 제1회 조선고적연구회 평의원회 會議案에는, 1931년 9월 1일부터 1932년 3월말까지 설립 첫 해 찬조금 6,000圓에 대한 예산 및 결산 내역이 확인된다. 예산안에서는 서울에서 사무소 운영비로 310圓, 경주연구소 4,170圓, 평양연구소 1,520圓, 그리고 예비비로 1,750圓이 배정되었으나, 서울에서 200.82圓, 경주연구소 2,036,53圓, 평양연구소 2,155,79圓을 사용한 것으로 결산되었다.

³⁰⁾ 이하 내용은 다음 문서를 참조하였다. 총독부박물관 공문서 古蹟調査25-6「第壹回 朝鮮古蹟研究會評議 員會議案」(昭和 7年 4月 4日), 총독부박물관 공문서 古蹟調査25-6「朝鮮古蹟研究會理事協議要項」(昭 和 7年 8月), 총독부박물관 공문서 古蹟調査25-5「第二回 朝鮮古蹟研究會評議員會議案」(昭和 8年 4月 5日)

^{31) 1931}년도 재정을 '岩崎小弥太男爵 寄附金 七千圓'이라고 밝히고 있으나(藤田亮策, 앞의 글(1963), 82·84 면 ; 坂詰秀一, 앞의 책(1997), 93면), 이번에 확인된 총독부박물관 공문서를 통해 7,000圓은 6,000圓의 誤記임을 알 수 있었다.

\\\\\\\\\\\\\\\\\\\\\\\\\\\\\\\\\\\\\\				
기관	항목	예산	결산	
	필묵비	50.00	174.77	
2] 0	통신운반비	50.00	16.05	
서울	잡비	210.00	10.00	
	소계	310.00	200,82	
	연구원봉급(1인)	940.00	1021.00	
	조수급여(1인)	200.00	1031.00	
	व्येष्ठो	400.00	371.18	
경주연구소	인부임	300,00	439.10	
	비품소모품비	750.00	130,31	
	잡비32)		64.94	
	소계	2,590.00	2,036.53	
평양연구소	व्ये मो	800.00	1,157.46	
	인부임	320.00	848.30	
	비품소모품비	330.00	93.98	
	잡비33)		46.05	
	소계	1,350.00	2,155.79	
예비비	예비비	1,750.00	1,606.86	
총계		6000,00	6000.00	

〈표 1〉 1931년도 조선고적연구회 예·결산 내역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발굴 조사에 소요된 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여비, 인부임, 비품·소모품비 및 기타 잡비는 발굴 작업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이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항목을 살펴보면, 경주연구소는 연구원 봉급, 평양연구소에서는 여비이다. 경주연구소에는 연구원을 채용하여 발굴 조사를 한 반면, 평양연구소에서는 조선총독부박물관 직원들이 현지 출장으로 발굴을 하였기 때문에 비용 지출항목에서 차이가 발생하였다.

조선총독부 고적조사위원이자 조선고적연구회 이사인 京都帝大 濱田은 有光教—을 경주연구소 직원으로 추천하였고, 이에 有光은 월 120圓의 급여를 받은 연구원으로 임용되었다.³⁴⁾ 경주연구소의 사무소는 조선총독부박물관 경주분관에 두었으

^{32) &#}x27;發掘地 損料(발굴지 보상금), 祭奠料(개토제 제수용품 구입비), 사진비 등'으로 명기되어 있다.

^{33) &#}x27;발굴지 보상금, 기타'로 명기되어 있다.

³⁴⁾ 그러나 有光은 최근의 글에서 조선고적연구회로부터 사령을 교부받은 적도 없을 뿐더러 연구원으로서

며, 연구소의 囑託으로 경주분관 촉탁 諸應央雄과 경주고적보존회 촉탁 大坂金太郎을 임명하여 9월 26일부터 업무를 개시하였다. 그리고 有光의 통역과 아울러 조사를 돕기 위하여 李雨盛을 월 급여 18圓의 조수로 채용하였다. ⁵⁵⁾ 1938년 조선총독부박물관으로 자리를 옮기기까지 有光은 경주에서 발굴조사를 전담하였다.

평양연구소는 9월 18일 대동군 대동강면 오야리에 임시 사무소를 두고, 平壤府 도서관장 針替理平, 평양중학교 교장 鳥飼生駒를 촉탁으로 위촉하여 업무를 시작하 였다. 경주연구소와 달리 평양연구소에서는 조선고적연구회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별도의 연구원을 채용하지 않았고 발굴조사에는 조선총독부박물관의 직원을 활용 하였다. 첫 해 발굴조사에 투입된 小泉顯夫와 澤俊一은 『朝鮮總督府所屬及官署職 員錄』에 의하면 조선총독부박물관의 소관부서인 宗教課 소속의 촉탁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조선고적연구회로부터 여비를 지급받고 평양의 발굴조사에 투입되었다. 따라서 평양연구소의 예결산에서는 여비의 지출 비중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고적연구회는 정무총감의 승낙을 받고 회칙을 결정한 직후인 8월 25일 곧바로 고분의 발굴허가를 신청하는데, 이때는 아직 이사, 평의원, 감사, 간사 등 임원들이 공식적으로 위촉되지 않은 시점이다. 발굴신청 서류는 조선고적연구회 이사장 명의로 조선총독에게 보내졌다. 560 조사 대상고분은 ① 경상북도 경주읍 황남리고분, ② 同 서악리고분, ③ 평안남도 대동군 석암리 제201호분, ④ 同 정백리고분이며, 발굴기간은 1931년 9월부터 11월까지, 그리고 발굴담당지는 藤田亮策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3일 뒤 열린 제35회 고적조사위원회에서 가결되고, 9월 5일조선총독부 「宗第107號」 문서로 발굴을 허가하다. 570

당시 허가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발굴 전 및 발굴 중 필요한 부분은 촬영을 하고, 그 구조와 매장품의 배치에 관한 정밀한 실측도를 작성한다.
- 一. 발굴유물 중 조선총독이 지정하는 것은 총독부박물관에 납부한다.
- 조사를 마치면 봉토와 기타를 원상으로 돌린다.

대우를 받은 적이 없다고 언급하고 있다(有光教一, 앞의 글(2000), 3면). 그러나 조선총독부 공문서에는 9월 1일자로 작성된 有光의 자필 이력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그해 12월 17일자 공문서에서는 경주연구소 硏究員 有光과 조수 李雨盛이 직무에 충실하고, 경주분관 雇員 崔順鳳은 황남리 고분 발굴 중에 회계 사무를 잘 처리한 공로가 있어서, 有光 50圓, 李雨盛 10圓, 崔順鳳 20圓을 지급할 것을 의결하고 있다.(총독부박물관 문서 古蹟調査25-6「年末手當給與/件」(昭和 6年 12月 17日)) 아울러 각종 회의 자료에서도 有光을 '硏究員'으로 지칭하고 있다.

³⁵⁾ 총독부박물관 문서 古蹟調査25-6「慶州研究所助手採用ノ件」(昭和 6年 9月 25日)

³⁶⁾ 총독부박물관 문서 古蹟調査25-3「古墳發掘ニ關スル件」(昭和 6年 8月 25日)

³⁷⁾ 조선총독부「宗 第107號」

- -. 조사를 마친 후 2년 이내에 정밀한 보고서를 제작하여 조선총독에게 제출한다.
- 一. 보고서는 조선총독부에서 간행한다.

경주연구소의 발굴 계획은 경주 황남리고분 2기와 서악리에서 도굴 고분을 조사하고 정리하는 것이었다. 실제 경주연구소는 1931년 9월 27일부터 11월까지 황남리 82호분과 83호분을 조사하였다.³⁸⁾ 또 12월 1일 서악리 西岳書院 樓門 아래에서 김인문 묘비를 발견하였다.

평양연구소는 석암리 201호분을 발굴하고, 정백리에서 도굴분을 한 두 기를 발굴할 계획이었으나, 실제로는 석암리 201호분, 남정리 116호분, 석암리 260호분을 발굴조사하였다. 당초 도굴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발굴 조사를 추진하였던 석암리 201호분은 이미 도굴된 상태였지만, 漆彩篋의 출토로 널리 알려진 남정리 116호분(채협총)을 발굴하는 望外의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³⁹⁾

(2) 1932년도 재정과 활동

1932년도 재정에 대해서도 기존 연구에서는 '細川護立 寄附金 6,000圓'이라고 밝히고 있으나,⁴⁰⁾ 이 역시 오류임이 밝혀졌다. 충독부박물관 공문서에 의하면, 1932년에는 전년도 잉여 이월금 1,600圓에, 새로 東京帝室博物館에서 5,000圓, 李王職에서 2,000圓을 기부 받아 재원을 마련한 것으로 적기되어 있다. 그러나 조선고적연구회의 재원 마련 과정은 순조롭게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이는 1932년 4월 4일 제1회 조선고적연구회 평의원회 회의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다. ⁴¹⁾ 통상 평의원회는 전년도 사업에 대한 보고 및 지출 재원을 결산하고, 1932년도 신규 사업을 승인하고 예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모이는 자리였다. 정상적이라면 당해연도인 1932년도의 예산이 이미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그래야 그에 따른 사업과예산안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1932년에는 회계 연도가 시작된 4월까지도 기부금을 확보하지 못하여 연구회의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궁여지책으로 1932년도 전반기는 전년도 잉여금의 범위 내에서 경주연구소가 우선 사업을 수행하고, 8월경 새로 사업비를 기부 받으면 평양연구소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조정하였다. 낙랑 칠기 수리비의 경우, 남정리 116호분에서 출토된 칠기 유물에 대한 보존처리의 시급성 때문에 이례적으로 편성되었다.

³⁸⁾ 有光教一, 1935 『昭和6年度 古蹟調査報告 第1册(慶州皇南洞第82號墳・83號墳 調査報告)』

³⁹⁾ 평양연구소의 1931년도 발굴 성과는 小泉顯夫 外, 1934 『樂浪彩篋塚』, 朝鮮古蹟研究會로 간행되었다.

⁴⁰⁾ 藤田亮策, 앞의 글(1963), 84면 ; 坂詰秀一, 앞의 책(1997), 93면

⁴¹⁾ 총독부박물관 공문서 古蹟調査25-6「第壹回 朝鮮古蹟研究會評議員會議案」(昭和7年 4月 4日)

따라서 전년도 잉여금을 운용하는 1932년 4월~7월까지 예산안과, 새로운 기부금 이 들어온 이후의 1932년 8월~1933년 3월까지 예산안을 나누어 작성하게 된다.

〈표 2〉1932년 4월~7월 조선고적연구회 예산안

항목		예산	비고
	연구원·조수 급여	690,00	138圓×5개월
경주연구소	인부임	300,00	
	비품·소모품·잡비	100.00	
낙랑칠기 수리비		250.00	50圓×5개월
사무소비		294.36	필묵, 측량기, 통신운반비
소계		1,634.36	

〈표 3〉1932년 8월~1933년 3월 조선고적연구회 예산안

기관	항목	예산	비고
	र्वम	1,750.00	1인 60일 및 왕복 800 1인 60일 350 이사, 간사 등 시찰비 600
평양연구소	인부임	850.00	
	비품소모품비	150.00	
	운반비	300.00	
	소계	3,000.00	
	연구원 · 조수 급여	1,116.00	
	ं धे	200.00	
ガスがフょ	인부임	500.00	
경주연구소	비품소모품비	250.00	
	잡비	50.00	
	소계	2,116.00	
	비품·소모품비	350.00	
2) 0	통신운반비	100.00	
서울	잡비	50.00	
	소계	500,00	
예비비	ब्रो मो	1,384.00	
총계		7,000.00	

1932년 4월 시점에서 8월에 들어올 기부금의 총액을 7,000圓으로 정하는 것으로 보아, 이미 기부금에 대한 협의는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1932년도 예산안의 항목 중 예비비 1,384圓에 대해서 '昭和八年四月乃至八月經費'라고 부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익년도인 1933년도 비 슷한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예상하고 있다. 1933년에는 이후 3개년간 日本學術振 興會의 자금이 유입되는 등 비교적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러나 1932년에는 재원 상태가 안정적이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32년도 사업 결과 이루어진, 결산 내역(1932년 4월 1일~1933년 3월 31일)을 정리하면 〈표 4〉와 같은데, 기본적인 지출 내역은 1931년도와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다만 여비 중 東京帝室博物館 사무 협의 항목과 사진촬영 촉탁에 관한 항목이 눈에 띈다. 전자의 경우 1932년도 자금 지원과 아울러 1933년~1935년 일본학술진흥회의 지원을 위하여 藤田이 東京으로 가서 협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촬영 촉탁 여비는 경주 남산 불교유적 촬영을 위하여 경성제국대학 소속의 사진사 수關光夫에게 의뢰하고 지급한 것이다.

〈표 4〉 1932년도 조선고적연구회 결산 내역

기관	항목	결산	비고
,10	급여	20.00	박물관 雇員 연말수당
	र्वम	300,00	경주 및 평양 사무 시찰 100 동경제실박물관 사무 협의 200
서울	측량기 · 사진기 · 기타	760.25	
	소모품 잡비	64.25	
	소계	1,144.50	
	급'경	1,792.00	연구원 120圓×12개월 조수 18圓×4개월, 조수20圓×8개월 연말수당 120
경주연구소	र्वमी	180.00	사진촬영 촉탁 100 연구원 경성 사무 협의
	발굴용구·기타비품	55.42	
	소모품·잡비	349.47	
	인부임	804.60	
	소계	3,181.49	
	급여	400.00	1인×50圓×8개월
	विध	1,744.10	
평양연구소	발굴용품·기타비품	12.60	
	소모품·잡비	124.57	
	인부임	283,55	
	소계	3,564.82	
총계		6,890.81	
다음연도 이월금		1,926.17	

경주연구소에서는 서악리 고분과 황남동 고분, 그리고 南山麓의 통일신라시대 고분을 조사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실제는 10월 1일~12월 20일까지 황오리 16호분을 발굴하고, 421 사진사 今關光夫와 함께 경주 남산의 통일신라 불교 유적을 조사하고 촬영한다.

평양연구소에서는 목곽묘 1기에 대한 학술조사, 도굴된 전실묘 2~3기 발굴조사, 그리고 낙랑토성 내 일부 지역의 토지를 구입하여 발굴 조사할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고적조사위원 小場恒吉을 주임으로 하여 경도제대 강사 梅原末治, 東京帝室博物館 鑑査官補 矢島恭介, 조선총독부박물관 촉탁 榧本龜次郎이 조사에 투입된다. 1932년 9월 중순부터 10월말까지 王光墓로 알려진 정백리 127호분을 비롯하여 정백리 266호분과, 전실묘인 남정리 119·120호분을 발굴 조사하였다. 43)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경주연구소는 有光教一이 중심이 되어 조사를 진행한 반면, 평양연구소에서는 동경미술학교 강사인 小場恒吉을 중심으로 하여 발굴팀이 꾸려 졌다. 아마 전년도에 조사가 이루어진 남정리 116호분에서 우수한 대량의 칠기가 출토됨에 따라, 이 해 조사에서는 발굴된 칠기를 잘 다룰 수 있었던 小場이 초빙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주목되는 인물은 동경제실박물관 소속의 矢島恭 介이다. 그런데 한반도의 발굴조사에 동경제실박물관 직원이 갑자기 참여하게 되 는 배경은 무엇일까? 이 부분은 조선고적연구회의 운영과 관련되는 사안이므로 다 음 절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2) 성격과 한계

東京帝室博物館 矢島恭介의 발굴 참여는 1931년도 예산에 동경제실박물관 찬조금이 5,000圓이 유입되는 것과 관련이 깊다. 이와 관련하여 동경제실박물관의 찬조금 지원이 발굴유물의 확보와 일정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자료가 있어주목된다. 49 1932년 8월 초 열린 朝鮮古蹟研究會의 理事協議 모임에서는 찬조금을 지원한 동경제실박물관과 이왕직박물관 측에 낙랑고분 발굴 유물 중 일부를 기중하는 문제가 논의되었다.

⁴²⁾ 有光教一・藤井和夫,2000 『朝鮮古蹟研究會遺稿 I : 慶州皇吾里16號墳・慶州路西里215番地古墳發掘調査報告)』,東洋文庫・유네스코東아トハウ文化研究센터

⁴³⁾ 평양연구소의 1932년도 발굴 성과 중 정백리 127호분과 남정리 119호분에 대해서만 보고서가 출간되었다. 小場恒吉·榧本龜次郎, 1935『樂浪王光墓』, 朝鮮古蹟研究會

⁴⁴⁾ 총독부박물관 공문서 古蹟調査25-6「朝鮮古蹟研究會理事協議要項」

1932년 8월 동경제실박물관은 5,000圓을, 이왕직은 2,000圓을 조선고적연구회에 기부하였다. 일본 제국주의 입장에서는 식민사관에 입각하여 조선의 고대문화를 일본에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조선에서 이루어지는 소위 문화사업들을 일본에 선전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당시에는 1937년 준공된 東京帝室博物館의 신축(復興本館)을 앞두고 있었고, 일제의 대륙 진출을 선전할 朝鮮滿洲室을 신설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 유물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⁴⁵⁾ 한편 조선고적연구회의 입장에서는 자금의 확보가 시급한 문제였기 때문에, 유물 기증을 매개로 한 이러한 자금 조달 방식은 설립 당초부터 구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黑板勝美는 東京帝室博物館 신축을 위한 翼贊會의 부장을 맡으면서 재정 뿐 아니라 전시유물의 확보에 노력하는 중이었으며,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적극 활동하고 있었다. ⁴⁶⁾

조선고적연구회의 발굴품 중 조선총독부박물관에서 진열품으로 활용되지 않을 유물 중 일부를 기증하기로 하고 유물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허가는 평 의원회에게 동의를 구할 예정이었다. 추측컨대 동경제실박물관에서 재정의 일부를 지원하는 대신 유물을 기증받는 문제는 조선고적연구회의 성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黑板이 재정 확보를 위한 한 방안으로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추측된다. 앞서 藤田의 메모에서는 조선고적연구회의 설립 과정인 1931년 6월 11일 黑板과 藤田가 大島義脩 동경제실박물관 총장 및 제실박물관 사무관과 협의하고 충분한 찬동을 얻었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 당시 모종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안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조선고적연구회의 會則에는 평의원의 결의에 따라 유물을 임의 처분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해 놓았다. 즉, 제 11조에는 조선고적연구회의 발굴조사에서 수집된 유물은 법령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시켜야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평의원회의 결의에 따라서 그것을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평의원회에서 결의만 하면 조선고적연구회의 발굴 유물을 동경제실 박물관에 기증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처럼 재정과 유물을 교환하는 재정 확보 방식은 사안의 성격상 비공개적으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당시경주연구소의 有光数—조차도 그러한 사정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언급이 있어 주목된다. 477 현재 東京國立博物館에서 소장하고 있는 정백리 127호분 출토

⁴⁵⁾ 총독부박물관 공문서 古蹟調査25-6「朝鮮古蹟研究會理事協議要項」

⁴⁶⁾ 東京國立博物館, 1973『東京國立博物館百年史』, 460~469면

⁴⁷⁾ 다음은 藤田亮策을 추모하는 토론회에서 나온 대화 내용으로, 東京帝室博物館의 재정지원과 유물 기증에 대하여 간략히 언급되어 있다.(桑田六郎 등, 1982「先學を語る: 藤田亮策先生」『東方學』63, 東方學會, 9면)

유물 등 다수의 발굴품은 조선고적연구회가 발굴한 유물로,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이 자 조선고적연구회 이사장였던 今井田淸德의 기증품으로 되어 있는데,⁴⁸⁾ 이 같은 과정을 통하여 유출된 것이다.

조선고적연구회는 설립 당초 민간으로부터 재원을 마련하고자 했기 때문에, 재정의 취약성은 연구회의 운영과 사업 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자금을 외부로부터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화려한 유물이 출토되는 평양의 낙랑고분이나 경주의 신라고분을 중심으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중에서도 주로 도굴이 되지 않은 고분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선고적연구회에 깊이 관여했던 경도제대 梅原末治는 "자금 관계 때문에 그것에 상응하는 성과를 요구하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낙랑과 경주의 고분군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49 조선고적연구회의 설립 이후 조선총독부의 경비는 주로 고건축물의 수리에 사용되었고, 발굴 조사는 조선고적연구회가 맡았다. 50 조선고적연구회는 재정난으로 위기에 처한 조선총독부의 고적 보호 및 조사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의 재원을 바탕으로 설립되었으나, 역으로 민간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화려한 유물이 출토되는 고분 조사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모순을 안고 있었던 것이다. 발굴은 또 하나의 유적 파괴라는 점을 간과하였다.

4. 맺음말

이상으로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 중 조선고적연구회 관련 자료를 통하여 연구회의 설립 과정과 초기 활동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和田(軍一) 宮內省의 돈이 나온 것은 조건이 붙지 않았습니까?

有光(敎一) 그것을 나는 모르기 때문에, 참 그렇습니다. 듣건대 출토품의 일부를 소화 15, 16년 경에 帝室博物館에 넣었습니다. 그것은 뒤에 문화재 반환 때 한국으로 반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궁내성의 하사금에는 아마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까? 뒤에 생각이 났지만요.

有光은 2003년 인터뷰에서 조선고적연구회의 1933년 발굴품 중 일부가 제실박물관으로 들어간 시기를 1934년으로 수정하였다.(京都木曜クラブ 編, 앞의 글(2003), 11~12・30면)

⁴⁸⁾ 정규홍, 2005 『우리 문화재 수난사』, 학연문화사, 271~272면

⁴⁹⁾ 梅原末治, 1973 『考古學六十年』, 平凡社, 159 년

⁵⁰⁾ 藤田亮策, 앞의 글(1963), 81면

朝鮮古蹟研究會는 조선총독부의 '古蹟調査'를 지원하기 위해 東京帝國大學 교수 黑板勝美의 주도로 설립된 민간단체이다. 이번에 발견된 藤田亮策의 備忘錄에 의 하면, 黑板勝美의 발의로 1931년 4월 1일 조선고적연구회의 설립에 관한 논의가 개시되어, 8월 25일 조선총독부의 최종 승낙을 받고 회칙이 결정됨으로써 설립이 마무리되었다. 설립 과정에서는 내부 조직 구성을 둘러싸고, 관료 주도를 내세우는 조선총독부와 제국대학 교수를 중심으로 운영하려는 黑板 간에 異見이 확인되며, 결국 설립 이후의 실질적인 운영 과정에서는 조선총독부의 영향력이 점차 강화되 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조선고적연구회는 평양과 경주에 硏究所를 각각 개설하고, 조선총독부의 허가 하에 낙랑고분과 신라고분을 중심으로 발굴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선고적연구회는 財政을 민간의 기부금에 전적으로 의존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불안정한 재원은 사 업 추진방향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재정의 확보에 주도적으로 활약한 인물도 黑 板勝美였다. 1931년도는 岩崎小弥太의 기부금 6,000圓으로 출발하였는데, 경주연구 소에서는 有光敎―을 유급 연구원으로 채용하여 경주 황남리 82호분과 83호분을 조사하였고, 西岳里에서 金仁門 墓碑를 발견하였다. 평양 연구소에서는 별도의 有 給 연구원을 채용하지 않고 조선총독부박물관의 직원과 외부 囑託을 활용하여 평 양 석암리 201호분, 남정리 116호분[彩篋冢], 석암리 260호분을 발굴 조사하였다. 1932년도에는 기부금 모금에 차질이 생겨 불안한 출발을 보였는데, 중간에 東京帝 室博物館에서 5,000圓, 李王職에서 2,000圓을 기부받았다. 경주연구소에서는 경주 황오리 16호분을 발굴하고, 경주 南山의 통일신라 불교 유적을 조사하였고, 평양연 구소에서는 평양 정백리 127호분[王光墓], 정백리 266호분, 남정리 119 · 120호분을 발굴하였다. 이 과정에서 東京帝室博物館 矢島恭介의 참여가 주목되는데, 이는 東 京帝室博物館으로부터 유입된 기부금과 관련이 있다. 黑板勝美는 동경제실박물관의 찬조금을 받기 위하여 발굴 유물 중 일부를 동경제실박물관에 기증하기로 하였으 며, 이를 위하여 회칙에서 평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유물을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두었다. 현재 東京國立博物館에 소장된 낙랑고분 출토 유물 중 일부는 이 같은 과정을 통하여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고적연구회는 유적의 보호를 위하여 민간의 기부금을 끌어들인다는 당초 취지와는 모순되게, 민간의 기부금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않을 수 없었고 자연 未盜掘 古墳의 발굴에 주력하게 되었다. 아울러 會則에서도 조사

대상을 平壤과 慶州를 중심으로 한 古墳으로 명시한 데서 알 수 있듯이, 단순한 학술 조사의 의미를 넘어 식민사관에 입각한 한국 고대사 체계를 수립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朝鮮古蹟研究會는 식민지하에서 이루어진 고고학 조사의 한 부면을 생생하게 보여주며, 이러한 제국주의의 유산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오늘 우리의 과제로 남겨져 있다.

주제어: 조선고적연구회, 조선총독부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黑板勝美, 藤 田亮策, 고적조사, 신라고분, 낙랑고분

투고일(2011, 4, 26), 심사시작일(2011, 5, 6), 심사완료일(2011, 6, 7)

(Abstract)

The establishment and activities of Korean Historical Site Research Institute in 1931~1932

Youngchan Oh*

This thesis has examined the process of the establishment and the activities of Korean Historical Site Research Institut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rough the remaining Archives from Japanese Governor-General Museum of Korea that now is stored at National Museum of Korea.

Korean Historical Site Research Institute was a nongovernmental institution that was established by the initiative of Kuroita Kastumi, a professor of Tokyo Imperial University; his aim was to support the archeological survey project of Japanese Governor-General of Korea. According to Fujita Ryosaku's memorandum, the discussion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Korean Historical Site Research Institute was started on 1 April 1931 by a proposal of prof. Kuroita Kastumi. After Japanese Governor-General of Korea's final acceptance on 25 August, the establishment was completed as the rules were determined. In the process of the establishment, a different view concerning internal organizational structure was perceived between Japanese Governor-General of Korea and prof. Kuroita Kastumi; the former was asserting the bureaucracy dominance, while the latter was intending to operate by centralizing professors of Imperial University in Japan. Eventually, the influence of Japanese Governor-General of Korea increased in the process of practical operation after the establishment.

Korean Historical Site Research Institute had two local institutes, each in Pyeongyang and Gyeongju, focusing on ancient Nangnang and Silla tombs. The finance of the institute was completely dependent on private donations, which had a major effect on their activities. It was inevitable that a major outcome achieved would be inviting private donations, which would contradict the original plan that

^{*} A curator at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private donations were invited for the protection of artifacts, since the focus was mainly to unearth ancient tombs. Furthermore, it is revealed by examining the rules that demonstrate survey objects concentrating on ancient tombs in Pyeongyang and Gyeongju, that the purpose was to establish the system of Korean ancient history based on the view of colonial history; this purpose exceeds the simple meaning and scope of mere academic research. Moreover, some of excavated artifacts were, as a result, taken to Tokyo Imperial Museum in Japan. Korean Historical Site Research Institute represents the aspect of archeological survey based on the colonial history, and today, our remaining task is to overcome the legacy of imperialism.

Key Words: Korean Historical Site Research Institute, Japanese Governor-General Museum of Korea, National museum of Korea, Kuroita Kastumi, Fujita Ryosaku, Archeological survey project, Silla tombs, Nangnang tombs

〈자료 1〉 조선고적연구회 회칙(1931년)

- 제1조 본회는 조선고적연구회로 칭한다
- 제2조 본회는 평양 및 경주를 중심으로 한 고분을 연구하여, 조선 문화의 발양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본회의 사무소는 조선총독부박물관 내에 둔다.
- 제4조 본회의 경비는 본회의 사업을 찬조하는 유지의 기부금으로 이를 충당한다.
- 제5조 본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 제6조 본회의 사업계획은 이에 소요되는 예산과 함께 매년도 개시 전,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하고, 사업 실시의 성과는 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이를 평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 본회에 아래의 직원을 둔다
 - 이사 5명 감사 2명 평의원 약간명 간사 2명
 - 이사 중 한 명을 이사장으로 하고,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의 직에 재임하는 자로 추대한다. 이사장 이외의 이사, 감사 및 평의원, 간사는 이사장이 이를 선임한다
- 제8조 이사장은 업무를 총리하고, 본회를 대표한다. 이사장이 유고 시에는 이사 장이 지명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업무 수행의 책임을 진다. 감시는 본회의 회계 및 재정상황을 감사한다. 간사는 이사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처리한다.
- 제9조 평의원회는 이사 및 평의원으로 이를 조작하여, 본회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평의원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제10조 본회의 사업 수행에 의해 수집된 유물은 법령에 의해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평의원회의 결의에 따라서 그것을 처분한다.
- 제11조 본회의 사업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칙은 평의원회의 결의를 거쳐서 이 사장이 이를 정한다.
- 藤田亮策, 1931「朝鮮古蹟研究會の創立とその事業」『青丘學叢』6, 青丘學會, 190日

〈자료 2〉 조선고적연구회 설립의 경과(1931년)

일시	내용	장소
4월 1일	黑板勝美,藤田亮策,諸鹿央雄은 민간에서 고적조사의 문제를 의논	泉眞樓
4월 2일	黑板는 兒王총감, 武部학무국장, 小田교수, 李종교과장에 안을 제시하고 양해를 구함. 총독에게는 동경에서 설명할 것을 약 속.	서울
4월 3일	黑板, 藤田, 諸鹿은 園田평남지사, 藤原평남 내무부장, 大島부윤, 針替도서관장, 富田晋二, 橘都芳樹, 기타 평양 민간유지와 회합하고 설명	평양 お牧の茶室
4월 5일	黑板는 대구에서 林경북지사에게 동의를 구함	대구
5월 ?일	兒王총감의 독촉으로 학무국장실에서 학무과장, 종교과장, 小田교수가 모여 총독부의 안을 만들고, 학무국장이 黑板에게 의견을 내다.	
6월 4일	黑板와 학무국장이 불러서, 藤田박물관주임이 동경으로 가다	
6월 7일	黑板, 武部학무국장이 4개 항 협의	일본 동경-조선 총독부 동경출장소
6월 11일	藤田은 原田동경제대 조교수, 大島제실박물관 총장, 제실박물 관 사무관과 협의하고 충분한 찬동을 얻다.	일본 동경
6월 15일	경도제국대학 문학부장 濱田박사, 梅原강사와 협의. 본회 성립문제, 연구원 선정 문제에 이해를 구하다.	
7월 18일	黑板는 藤田에게 편지	
7월 22일	武部 前학무국장은 牛島학무국장에게 편지	
7월 25일	黑板는 牛島학무국장에게 편지	
7월 31일	牛島학무국장 명의로 武部 前국장에게, 종교과장은 黑板에게 답장. 會의 기초안을 제시	
8월 9일	黑板는 李종교과장 앞으로 제안된 회칙안에 이의의 뜻을 편지.	
8월 15일	小田교수, 今西박사, 末松, 鮎貝, 종교과장, 藤田주임이 의견 을 교환하고 서로 혐의.	
8월 24일	정무총감의 승낙을 받고 회칙을 결정, 본회 성립.	
8월 25일	黑板가 서울에 오다. 학무국장, 정무총감과 협의	
8월 26일	평의원을 촉탁하는 의뢰장을 발송	

8월 27일	黑板가 藤原내무부장, 大島부윤 등에게 會의 성립과 협조를 바람.	평양
8월 28일	고적조사위원회에서 본회 사업안을 승인. 岩崎家에서 기부하는 문제. 이사장 및 黑板의 兩通同對 발송	서울
8월 29일	黑板가 서울을 떠나다.	
8월 30일	黑板가 경주연구소 조사예정지를 예비조사.	경주
9월 1일	三菱合資會社 靑木菊雄으로부터 편지. 6천圓을 京城出張所에서 지불할 뜻 알림	
9월 5일	岩崎 찬조금 예산안 작성	
9월 7일	경주, 평양연구소 사무촉탁 의뢰 : 주제하는 연구원의 조사에 협조 지도(평양 針替理平·鳥飼生駒, 경주 諸鹿央雄·大坂金 太郎)	
9월 9일	岩崎남작에게 禮狀 발송	

^{* 4}월 1일에서 9월 1일까지 내용은 총독부 공문서 古蹟調査25-6「朝鮮古蹟研究會設立ノ經過(조선고 적연구회 설립 경과)」에 의거하여 작성, 9월 5일에서 9월 9일까지 내용은 여타 조선총독부 공문서 에 의거하여 작성,

〈자료 3〉조선고적연구회의 임원 구성(1931~32년)

	조선총독부 초안	1931년	1932년
이사장	정무 총 감	정무총감 今井田淸德	정무총감 今井田淸德
이사	학무국장 종교과장 박물관장	학무국장 牛島省三 동경제대 黑板勝美 경도제대 濱田耕作 경성제대 小田省吾	학무국장 林茂樹 동경제대 黑板勝美 경도제대 濱田耕作 경성제대 小田省吾
감사	고적조사위원 고적조사위원	회계과장 菊山嘉男 李王職사무관 末松熊彦	회계과장 菊山嘉男 李王職사무관 末松熊彦
평의원	동경제대 黑板勝美 경도제대 濱田耕作 경성제대 小田省吾 在조선 고적조사위원	동경제대 原野貞 동경제대 流內藤虎次郎 경점제대 內藤虎次郎 경점제대 內藤虎次郎 경성제대 內藤虎次郎 경성제대 內藤虎次郎 경성제대 內藤虎次郎 (청성) (청성) (청성) (청성) (청성) (大) (大) (大) (大) (大) (大) (大) (大	동경제대 陽田級太 동경제대 原田級宏 原田級宏 原田級宏 高和대 鳥교 原田 內方 原田 內方 原田 內方 原田 內方 原田 內方 原田 內方 一一 一一 一一 一一 一一 一一 一一 一一 一一 一
간사		종교과장 李昌根 박물관 주임 藤田亮策	사회과장 兪萬兼 박물관 주임 藤田亮策